

전남교육청 '공생의 물길 프로젝트' 사전답사 대장정 성료

전남교육 가족들, 350리 전 구간 도보로 탐사 다음달부터 '학생 활동 중심 환경교육' 진행

전남의 교육가족들이 영산강 350리 전 구간을 도보로 탐사하는 '공생의 물길 영산강 걷기' 대장정을 성공리에 마쳤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영산강의 생태 탐구, 환경보전 실천 학습을 통한 생태시민 육성을 위해 '공생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호남의 젓줄인 영산강과 내 고장의 생태 탐구, 실천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생태시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영산강과 내 고장의 생태를 복원하는 관심과 바람을 일으켜 지역사회의 환경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교육가족 영산강 350리 걷기'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사전답사 성격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전남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가족, 학생 등 연인원 6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지난 25일 진행된 마지막 7구간 걷기에는 목포홍일고 학생 60여 명도 지도교사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고, 조옥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도 동참해 힘을 보탤었다.

걷기는 지난 2월 4일 영산강의 시원지인 담양군 용소를 출발해 영산강 하구연이 있는

목포시 평화광장까지 145.1km를 매주 토요일 7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했다.

전남교육 가족들은 영산강을 걸으면서 4월 시작되는 '공생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 주변 생태계를 살피고, 학생들의 탐구·실천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수집했다. 특히, 매 구간 도보탐사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교육가족들과 공유함으로써 자연과 공생하는 미래인재 양성에 힘을 보탤었다.

참가자들은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일(2월 4일)에 시원지를 출발, 개나리가 만발한 3월 25일까지 7주 동안 봄이 오는 풍경을 즐기며 영산강의 아름다움에 탄성을 자아냈다. 반면, 하루로 내려올수록 탁해지는 영산강의 수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깊은 탄식과 함께 수질 복원을 위한 실천활동, 그리고 미래 공생을 위한 생태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탐사를 마친 교육가족들은 25일 마지막 구간 도착지인 목포 평화광장에서 해단식을 갖고 영산강 수질복원 및 생태환경 교육 강화 의지를 다졌다.

145km 전 구간을 완주한 한 교육가족은



"수질 오염에 시달리는 영산강의 모습을 실제 눈으로 확인하니 생태 환경에 무관심하게 살아온 지난날이 너무도 부끄럽게 다가선다."면서 "이번 공생의 물길 프로젝트가 마중물이 되어 영산강이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도 "일회적인 이벤트로서 걷기 행사가 아닌 영산강의 생태복원을 위한 실천 활동으로서 지속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일에는 끝판타임이 있듯, 공생의 물길 프로젝트가 신음하는 영산강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끝판타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의 탐구, 실천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학생들과 함께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옥현 위원장은 "예로부터 물을 다스리는 정책 중에 최고의 상책은 자연 그대로 흐르게 하는 것이라 했다."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막힌 영산강 물길을 다시 뚫어 호남의 젓줄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생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 공동실천 선포식은 오는 4월 26일(수) 오후 2시 목포 평화광장에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가족, 지자체 등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영산강 전 구간에서 진행될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다양한 생태 탐구 및 환경보호 실천 활동 중심으로 펼쳐진다.

도교육청은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활동을 위해 지도교사 역량 강화 및 예산을 지원하고, 영산강 디지털 생태탐사 지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환기자

광주 화운유치원, 탄소중립시범학교' 운영

공기정화식물 만들기 행사 실시



광주 화운유치원이 지난 27일 유치원에서 흥풍아자를 활용한 "공기정화식물 만들기"를 실시했다.

지난 27일 화운유치원에 따르면 이번 공기정화식물만드는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유아

들에게 기후위기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유아기부터 환경위기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 지원에 중점을 뒀다.

유치원에서도 유치원 및 연령별 교육과정에 지속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교육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이번 교육은 환경생태 감수성 함양 및 환경친화적 실천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화운유치원 백선희 원장은, "우리아이들이 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을 생활화하는 좋은 습관을 지니도록 교육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탄소중립실현을 실천해 지역 상생의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장성 동화초, 마을학교와 함께한 생태체험 활동 운영

유치원·전교생 함께 참여

장성 동화초등학교는 지난 27일 유치원, 전교생이 함께 학교 텃밭에 감자 심기 체험활동으로 동화골 마을학교 시작을 알렸다.

이번 체험활동은 동화초 작은학교 특색프로그램으로 '마을학교 연계 생태교육 운영'을 몇 년째 실시하고 있다.

동화초는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학교 텃밭이 있어 학부모와 지역민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고랑을 만들고 비닐 작업을 준비해 놓았다.

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씨감자는 심는 방법을 안내하고 전교생은 안내에 따라 학년별로 지정된 고랑에 짝을 띄운 씨감자를 하나 하나 비닐 속으로 속속 밀어넣었다. 조심스럽게 흙을 만지며 무럭무럭 잘 자라길 바라는 아이



들은 제법 진지했다.

장성=김수권기자

고흥 금산초, 학생회 주관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고흥 금산초등학교는 지난 27일 아침 등교

아침 등교시간에 학생회 주관

시간에 학생회 주관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학생회 임원들은 '우리 모두 소중해요. 서로 배려하는 행복한 금산초 함께 만들어요.'라는

슬로건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페인에 참여했다.

6학년 정우진 학생은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회의하면서 준비하고,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소감을 전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